



‘다름’을 수용하는 사회를 꿈꾸며

《딸들에게 희망을》 펴낸 오숙희씨

거부한다. 지금껏 말도 하지 않고 옷과 신발을 벗어던지기가 일쑤. 아이에 대한 책임이 엄마에게 돌아온다. 전문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다녔다. 이혼사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굳게 믿는 경직된 사람들 틈에서 오숙희씨가 얻은 것은 절망과 분노뿐이다. 남들과 비교할 때가 자기 처지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 세월 동안 얻은 것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린 문제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요. 각각의 핸디캡을 극복해 가는 삶이야말로 가치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완벽주의자였던 오숙희씨를 그만큼 공굴리고 성숙시켰다. 어려움 속에서 그는 늘 주문처럼 ‘희망’을 되뇌며 산다.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해 공기 맑고 흙과 나무가 있는 고촌읍으로 이사한 오숙희씨는 돌아오는 어버이날쯤, 모녀를 주축으로 하는 토크쇼나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많은 어머니와 딸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장을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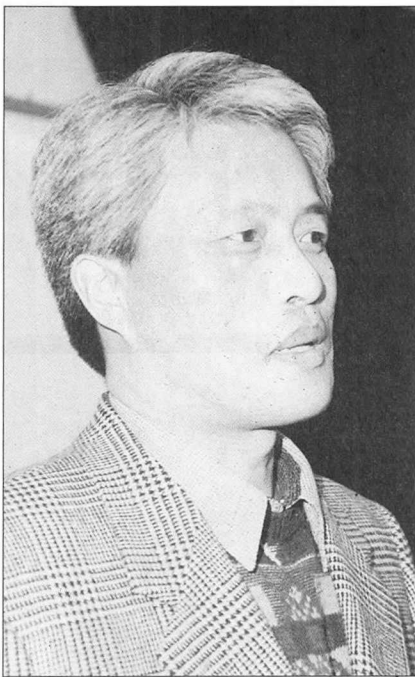
— 마정미 기자

여성학자 오숙희씨(38)가 새책을 냈다. 《딸들에게 희망을》(석필)은 자신의 농익은 삶의 고통과 분노를 토로하고 그 안에서 희망과 대안을 찾는 보고서다. ‘다름’ 때문에 차별당하는 여아와 장애아가 사회적 편견에 움츠러들지 않고 민주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공들여 온 교육일지이기도 하다. 사회의 권력구조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의미에서 여성과 장애인은 서로 비슷한 입장이다.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래서 책제목도 ‘딸들에게 희망을’이다.

“이 땅의 모든 딸들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남녀차별이 엄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고발하고 지탄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발달하고 희망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개선하고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숙희씨네 가족은 모 드라마 제목처럼 ‘일곱 개의 손가락’이다. 자신의 아이 둘, 큰언니의 아이 둘, 오숙희씨와 독신인 둘째 언니, 오숙희씨의 어머니가 그 구성원인데 4가지 성씨의 여성들이 한집에 모여 산다.

이중 두 아이가 사회적 편견에서 볼 때 장애아다. 유일한 남자인 조카 경민이 교통사고를 당해 휠체어를 타는 처지이고 6살된 둘째 딸 희령이가 아직 말을 안한다. 이혼의 와중에서 이 아이들이 모두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오숙희씨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다. 학업을 중단한 경민이를 자극시켜 검정고시 준비를 함께 한 것도 오숙희씨. 그러나 오숙희씨를 무엇보다 절망감에 빠뜨린 것은 둘째 딸 희령이다. 해맑고 밝은 이 아이가 사회화를



입말이 살아 있는 흥미로운 옛 이야기

《박박 바가지》 펴낸 서정오씨

서정오(41, 대구 감삼초등학교)씨는 20년 넘게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다.

“학교에서건 집에서건 지시받는 일에 익숙해 있고 비디오나 오락기에 빠져 있는 요사이 아이들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야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지만, 만날 수 없는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이야기를 글로 써 읽힐 수밖에 없었다. 동화작가도 소설가도 아닌 서정오씨가 옛이야기를 수집하고 글로 쓰는 일을 시작한 것은 이 때문이다. 모두 열 권으로 기획된 ‘옛이야기보따리’ 시리즈는 그 결실이다.

지난해부터 선보이기 시작해 《두꺼비 신랑》《꿈지 닳발 주둥이 닳발》《메주도시》《호랑이 잡는 기왓장》《나귀 방귀》 등을 펴냈고, 최근 여섯번째 책 《박박 바가지》가 나왔다. 한편 한편마다 갈래를 정해 걸맞은 이야기들을 묶고 흥미를 배가하는 그림을 함께 어울렸다.

《박박 바가지》는 ‘배꼽 빠지게 우스운 이야기’ 모음이다. ‘바보 남편 인사배우기’ ‘박박 바가지’ ‘저저 먹은 술’ ‘떡 먹기 내기’ ‘방귀쟁이 며느리’ 등 열네편의 이야기가 수록됐다.

제목만으로도 슬금슬금 웃음이 나는데, 읽어나가는 중에는 배꼽을 잡고 책장을 덮고도 입가에서 웃음을 지울 수 없다. 혼자 알고 넘어가기에는 입이 근질거리려 꼭 다른 사람에게 들려줘야 속이 시원하다. 이야기가 오랜 세월 끊이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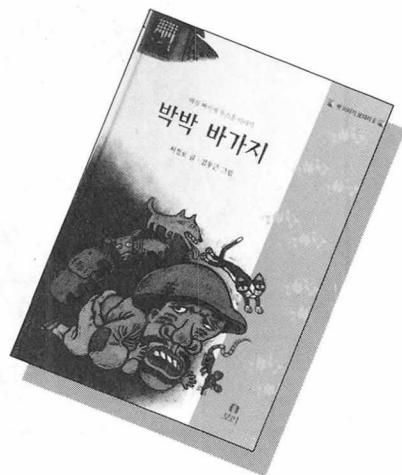
서정오씨는 옛이야기의 이러한 특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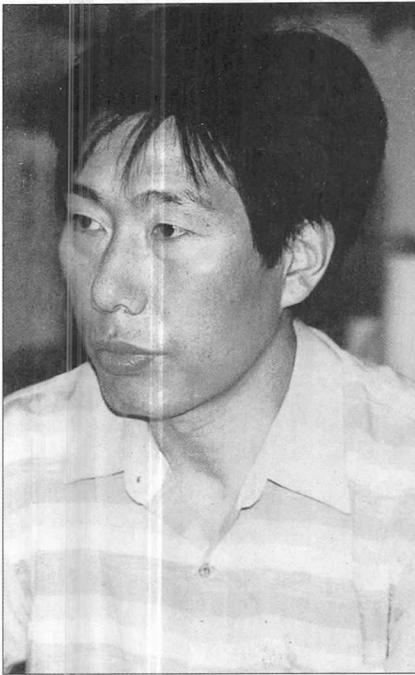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 몇가지 원칙을 세웠다. 이야기 속에 살아있는 감칠 맛 나는 우리말의 느낌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입말(구어체)’을 쓴다는 것. 그리고 함부로 고치거나 침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옛 이야기들을 많이 알리는 일 만큼이나 그대로 보존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까닭이다.

“동화는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는 책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것이지요. 그 책이 온통 서양동화 일색이 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옛이야기를 되살리고 들려주는 일의 의의를 이렇게 강조하는 그는 앞으로도 우리 옛이야기를 찾고 모으는 일에 매달릴 예정이다. 서정오씨는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줘야 하는지 곤혹스러워하는 어른들을 위해 《옛이야기 들려주기》(보리)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 박남정 기자





우리 땅을 밟으며 그린 '생각의 흐름'

《길에서 쓴 그림일기》 펴낸 이호신씨

화면으로 는 작은 부분이지만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일으키는 감흥은 크다. 나그네의 상념에만 빠져들지 않고 현재의 삶을 들여다 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직접 만든 종이를 모아 둔 스크랩, 옹기 굽는 마을에서 일을 하고 얻어 온 다기가 그림을 풍경으로만 여기지 않는 이호신씨의 모습을 보여준다.

“《환경운동》 등 여러 지면에 발표한 컬럼과 그림을 책으로 묶으면서 그림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다짐하고 싶었습니다.”

동양화를 여기(餘技) 정도로 여기는 화단에는 그림이 체험과 진지한 모색을 통해 그려진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일반 독자에게는 ‘진득하게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 보고 오래오래 앉아 어딘가를 바라보는 일’을 되살려 주고 싶었다. 하지만 시·서·화가 하나로 어우러진 그림을 그리려고 해온 일이 화가로서의 평가를 앞지르려가 걱정스럽다. 세 차례나 개인전을 치렀지만 아직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는 이호신씨는 저자가 아닌 화가로 올바른 평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책에 담았던 그림과 지면상 부득이 빠진 그림을 모아 전시회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 이현주 기자

화가 이호신씨(41)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다. 벽면을 요령있게 갈라 만들어 놓은 책꽂이 구석구석을 채운 크고 작은 스케치북들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것이 10여년 동안 우리 땅을 직접 밟고 다니며 그린 것임을 생각하면 더 그렇다. 《길에서 쓴 그림일기》는 이렇게 모인 스케치북의 그림과 그 갈피마다 끼워 두었던 감상을 걸러낸 책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정선 단임골, 정선 아라리 고장에서 그 가락을 익히며 사는 부녀, 옹기를 굽고 일차를 거두고 전통기법으로 염색을 하는 징광마을 사람들, 성철스님의 다비식, 사라져가는 우리 식물과 곤충·동물, 이제는 관광객들의 눈요깃거리가 된 고사찰. 3박4일, 길면 5박6일의 여행기간 동안 연필로 스케치만 한 것도 있고 화폭이 2미터나 되는 채색화도 있다. 마음으로 느낀 것, 눈으로 본 것을 고스란히 담은 글 또한 정감을 더한다.

“모두 떠나버려 빈 집만 남은 마을, 폐교가 된 학교자리, 잎이 다 떨어진 감나무의 까치밥, 옹기를 굽는 사람, 우리 종이를 만드는 사람... 그런 것에서는 빛이 납니다.”

변하지 않는 ‘성심’이 깃든 탓이다. 대개 전통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라져 가는 것들’ 가운데 이호신씨가 화가로서 취한 것은 진경화법이다. 부감화면을 보는 듯한 전통 산수화는 서양의 원근법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 펼쳐진 풍경에 현재의 일상이 점처럼 끼어든다. 행락객들이 둘러 앉아 밥을 먹고 있는 화양구곡 금사담, 동해안의 철책 앞을 서성이는 사람들. 전체



미래의 지도자를 위한 당부 몇마디

《어느 할아버지의 평범한 리더십 이야기》 펴낸 박정기씨

단련하라 ▲술선수범하라 ▲추진력 있게 일처리를 하라 ▲책임감을 가져라 ▲아랫사람을 감복시켜라 ▲하늘을 두려워하라 등.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대한 외경은 박회장의 지도자론의 두가지 핵심 주제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주 속에 몰입하면, 작은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호흡과 심장의 고동마저 큰 사랑이 포용한다. 그리고 남은 것은 위대한 사랑이다. 그리고 그 순간 작은 나는 큰 우주가 되는 것이다.”(279면)

박회장은 이 책을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바치고 있는데, “앞으로의 리더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다. 곧, 패권과 패도에 머물러 있는 기존의 지도자론에 맞서 순리를 따르면서 왕도정신을 구현하기를 바라는 새로운 대안의 제시인 것이다. — 최성일 기자

‘어느 할아버지의 평범한’ 시리즈를 네권째 펴낸 박정기(62, 한덕생명보험) 회장은 결코 평범한 할아버지는 아니다. 육군사관학교(14기)를 졸업하고 군에 몸담고 있다가 73년 예편 후 기업 ‘전선’에 들어섰다. 정우개발의 부장으로 출발해 사장에까지 이른다. 80년대에는 한국중공업과 한국전력의 사장을 지냈다. 89년부터는 한덕생명보험의 회장을 맡고 있다. 11년 동안 맡았던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직은 지난해 연말 내놓았다.

“《어느 할아버지의 평범한 이야기》(울지서적, 1989)는 주위의 친지들에게만 돌려보려고 만든 책입니다. ‘평범한’이란 수식어는 집사람의 주장입니다. 책 발간을 내켜 하지 않았던 집사람이 이 말을 붙이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제목에 얽힌 이런 뒷얘기가 있는 《... 평범한 이야기》는 애초 비매품으로 나왔다. 책을 얻지 못한 이들의 요구에 의해 정식출판을 하게 되는데, 책이 나오자 30만 부 가까이 팔려나갔다. 94년 ‘평범한’ 시리즈를 속개해 《... 정치론》(만다라, 1994)와 《... 문명이야기》(삶과꿈, 1995)에 이어 지난해 연말 《어느 할아버지의 평범한 리더십 이야기》(울지서적)를 펴내기에 이른다.

이 책은 지도자의 자질론이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동서고금의 예화를 빌어 제시한다. 문학·예술·종교·군사 각 방면에 걸친 저자의 박식함이 유감없이 드러난다. 지도자론의 씨앗이 사관학교 시절에 싹트었다는 박회장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일곱가지 덕목을 제시한다.

▲사람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을

